

## 나의 설교론

정 주 채

(잠실중앙교회 목사)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라고 하는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욕구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것은 배부름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사가 다 문제가 된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이나 심방등 다른 여러가지가 좀 미흡해도 배가 부르면 교인들은 잘 참는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열심히 해도 설교가 약하면 온갖 불평이 다 일어난다.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양이 따르며 쉼을 얻는다. 대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9)고 하셨다.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요6:68)라고 하였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필자의 설교가 과연 강해설교냐 하는 의문은 있지만 나름대로는 강해설교를 하고 있고 강해설교를 좋아한다. 필자는 대개 일년에 성경중 한 권을 택하여 계속 설교한다. 절기나. 혹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른 성경 본문을 택하여 설교하기도 한다. 그리고 택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설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각 장에서 중심되는 구절들로 설교하고 파악히 지나가기도 한다.

어떤 성경을 강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전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어느 한 성경이 택해지면—혹은 택하기 위하여—그 성경 내용 전체를 읽으며 공부한다. 성경 개론을 읽기도 하고 주석들의 서론을 주로 읽는다. 때로는 QT를 하면서 묵상했던 성경을 택하기도 하고, 먼저 수요기도회에서 공부를 하고 몇 년 뒤에 설교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택해지면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한다. 우선 그 성경의 구조를 살펴본다. 구조와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면 설교할 때 전체 문맥을 벗어나지 않으며 전체에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하다. 이 구조는 그 성경의 첫 설교에서 소개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인들

이 기대를 가지기도 하며 그 성경을 대하는데 자신감도 갖게 된다.

그리고 참고 자료들을 모은다. 좋은 주석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이곳저곳 다니며 구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택해진 성경으로 대략의 설교계획을 세운다. 일년동안에 한 권을 끝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필자는 지금까지 상당수의 성경들을 강해하였다.

이 정도로 준비되면 본문선택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 필자는 본문을 비교적 많이 잡는 편이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문의 분량을 정하고 있다.

본문이 정해지면 가급적 본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려고 노력한다. 어떤 목사님은 본문을 암송할 정도로 수십번씩 읽는다고 하는데 아직 필자는 그 정도까지 읽지는 못한다. 그러나 많이 읽으려고 노력한다. 또 다른 번역서들을 비교하면서 읽는다. 반복해서 읽는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

다음에는 본문연구와 자료 읽기를 한다. 주석들을 읽으며 좋은 자료들을 메모한다. 원어성경을 참고한다. 본문을 분석하되 문맥을 중시하며 본문의 틀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가끔 너무 많은 자료가 문제될 때도 있다. 잡다한 자료들을 이리저리 엮어 보았자 살아있는 설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설교의 윤곽을 잡아 본다. 필자가 가장 고심하는 곳이 여기이다. 설교의 아우트라인이 작성되면 설교준비의 80%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원고 작성과정에서 잡은 틀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도무지 대지와 소지가 잡히지 않을 때는 서론부터 작성해서 들어간다. 설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이 잘 풀려나가는 경우도 있다.

원고 작성은 비교적 꼼꼼히 하는 편이다. 목회 초기에는 작성된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 지금은 원고에서 상당히 자유로우나 역시 작성은 가능한 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원고작성을 안하면 우선 게을러지기 쉽다. 그리고 어휘나 문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완벽한」 원고작성은 원고를 너무 의존하게 만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정성스럽게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원고작성은 주로 금요일에 끝내려고 노력하지만 토요일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 돈이 말한다

### 야고보서 5:1~6

정 주 채

(목사, 잠실중앙교회)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말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열번 찾아가도 잘 안되던 일이 돈이 한 번 가니까 즉시 해결되고, 어디서든지 돈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자세를 하면 사람들은 “돈이 말하는군”하고 씩씩해 합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더 원하는 것이 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돈이고, 갖고 싶은 것이 돈이고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의 위력은 자못 크기 때문입니다. 돈은 세상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돈은 경우에 따라서는 웅변 이상의 설득력이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천한 사람도 귀하게, 약한 사람도 강하게, 미련한 사람도 돋보이게 그야말로 잘난 사람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입니다.

그러기에 돈은 돈으로 안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듯 만능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만 있으면 귀신도 잡아오고 호랑이 눈썹까지도 빼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정말 돈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돈이 말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이 그 소유주를 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썩은 재물과 좀 먹은 옷과 녹이 난 은과 금이 그 주인을 고발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노임을 때 먹은 주인에 대해 미지불된 돈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기적인 부자들, 악한 졸부들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며 심판의 경고입니다. 성경은 부정직하고 이기적인 부의 축적과 부의 남용을 끊임 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은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고 있다고 경고합니다(암 3:10). 그는 가난한 자들을 밟는 자들과, 다듬은 돌로 지은 집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진 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암 5:11).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것을 결코 향유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눈을 속이며, 되를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켠레로 빈궁한 자를 사며, 가난한 자에게 밀의 찌기를 속여서 넘기는 자들에게 아모스는 화를 선언하고 있습

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암 8:4~7)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하시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부는 유혹이며 올무입니다. 부한 자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정욕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러니 이기적이고 악한 부자들의 금고에 있는 돈들이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줄 알면서도 기어이 발락을 따라가던 발람에게 당나귀가 입을 열어 그를 책망했듯이 악덕 기업인들, 사회정의를 무시하고 돈 때문에 맹목이 되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돈이 소리지르고 돈이 주인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 1. 여기 본문의 부자들은 이기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부의 축적 과정이 대단히 악했습니다. 이것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은 불법적인 방법과 악한 목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자들을 집요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인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요즘같이 노동계약을 하고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하루를 벌어들여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날품팔이 노동자들은 그 가족과 함께 언제나 기아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루 품삯한 데나리온은 겨우 몇 식구가 하루 먹는 식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날은 그와 그 식구들이 굶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품삯을 때어 먹는다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면 “품군의 삯을 당일엔 주고 해진 후까지 두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로까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업주들이 부의 축적이 주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

졌다 하는 것을 반성해 보면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노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 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모두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몇 일이나 몇 달만에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분하고 진지하게 서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산업 발달의 일방적 목표만 가지고 경영인 중심으로만 기업을 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근대화를 통해 축적된 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 교우님들중에 경영인이 있다고 하면 한번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악한 부자들은 권력층과 결탁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가 괴롭혔습니다.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 같은 임금을 착취하면서 만일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하거나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법정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거나 형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하기만 했고 악한 자들은 돈으로 만능의 행세를 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법정의 재판을 돈으로 좌지우지 했던 일은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멀리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축재자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경제적인 사고가 났다하면 적어도 몇 백억이나 몇 천억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숫자 개념을 흐려 놓았습니다. 일억이라면 돈같이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돈에 대한 숫자개념을 제대로 가져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아껴 한달에 10만원씩을 저금해서 1억을 모운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보았다니 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약83년 걸리고 10억이면 830년, 100억이면 8,300년이 되어 거꾸로 계산하면 노아 홍수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정 축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돈과 권력의 결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너 황금률(the

golden rule)무엇인지 아니?”하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대접을 받고져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고지식하긴. 황금률이란 돈(황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2. 이 악한 부자들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또 그것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니 재물을 쌓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잘 사용해야 할 재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한 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은 잔뜩 쌓아 두었습니다. 이들이 재물을 어찌나 오래 쌓아 두었는지 음식은 썩고 옷은 좀이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금이나 은은 녹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녹이 슬었다고 표현한 것은 악한 부자들의 지독한 패쇄적인 이기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공유적 속성을 가진 재물을 유통시키지 않고 묻어 두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용 하도록 창조하신 것을 파멸 시키는 자들이요 따라서 인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치하고 연락했습니다. 사치와 연락은 부자들의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어쩔단 말인가”하고 흥청거립니다.

사치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분수에 지나친 것이 사치입니다. 수입은 적은데 분수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친 호사가 사치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재물을 가치있고 보람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적인 것에다 허비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헬라이어의 “사치”라는 말속에는 “파괴한다”는 낱말의 어근이 들어 있습니다. 곧 인간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건전한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물질의 재생산력을 파괴하는 것이 사치요, 또 사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락한다”는 말은 더 나쁜 말입니다. 음란과 호색과 분방한 타락 생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부자가 자기 개인의 안락과 일시적인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생활은 적당하고 평범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고 사치스런 음식을 해 놓아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병이

될 뿐입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잘 생긴 사람은 아무거나 걸쳐도 다 그럴싸 해 보입니다. 그러나 못 생긴 사람이 좋은 옷을 많이 걸쳤다고 해서 갑자기 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것을 요란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즐거움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면 다 무감각해지고 허무해지고 변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치와 연락은 남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악입니다.

### 3. 야고보서는 이런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하였습니다. 3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하였습니다. 사실 야고보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고 불과 10년을 넘기지 못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들의 모든 재물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도리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판 날에는 불의하게 모은 재물들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 소리를 질 것입니다. 썩은 곡식, 썩이 먹은 비단, 녹슨 은과 금이 그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고발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모아 놓은 재물이 자기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이 심판의 증거가 되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연락하는 자들은 연회를 위하여 살진 짐승이 도살을 당하듯 심판의 날을 위하여 살찌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쾌락의 종말은 탄식이며 그들의 종국은 죽음입니다. 이기주의는 항상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꼭 심판 날이 되어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서도 심판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악하게 재물을 모았다가 자기도 망치고 자자손손의 신세까지 망쳐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잠시 기독교인의 자세를 정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우리의 풍성함이 물질에 있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알고,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꼳꼳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이요, 돈입니다. 온 세상이 이것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더라도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 자체는 결코 불결하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에 이른다면 이 부는 바로 청부(淸富)입니다. 깨끗하게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청부입니다. 그러나 청부가 되지 못할 바에야 청빈(淸貧)한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셋째로 재물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명은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청부의 정신이요, 청부의 윤리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재산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과 헌신이 요청됩니다. 기독교인 부자들이 이같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는 자기의 재산과 기업이 갖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주는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가정의 집사는 모든 식구들이 때를 따라 좋은 양식을 얻게 하고 모든 편리를 도모합니다. 기업인은 한 사회의 집사가 되어 그 사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됩니다. 정욕을 따라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주의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물질생활에서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업사회에서 욕심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욕심이 맛부딪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물질생활을 진지하게 반성해 보십시오. **■**